

이번 주의 책

왜의 쓸모

사람들은 왜 이유를 달까

찰스 틸리 지음 · 최지원 옮김

책 소개 강의 노트 · 김동영

표지 도판

「마을의 정치가들」(데이비드 윌키 그림, 1813년 판화)



들어가며

이유는 설명일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왜?"에 답할까요?

지각한 이유

과제를 늦게 낸 이유

약속을 취소한 이유

정책이 실패한 이유

우리는 이유를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유와 틀린 이유가 있고, 좋은 이유는 정확한 이유라고 여깁니다.



도판 1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 (에드워드 스타이컨 사진)

저자 · 찰스 틸리 (1929~2008)

혁명, 민주화, 국가 형성 같은 거대한 사회 변동을 평생 연구한 사회학자. '21세기 사회학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는 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던진 질문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유를 달까?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라기보다, 상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협상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기 이전에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관습, 이야기, 코드, 학술적 논고

01

관습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투적인 이유

“기차가 늦었어요”
“원래 그런 거야”

02

이야기

원인과 결과를 단순한 서사로 엮은 설명

“그 친구가 질투해서 나를 배신했어”

03

코드

법, 규정, 종교 규범처럼 정해진 규칙에
기대는 이유

“규정 369조 때문에 기록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04

학술적 논고

전문 지식에 기반한 복잡한 인과 설명

비전문가는 따라가기 어렵다

경제학도에게는 2×2 표가 빠르다

	정해진 공식	인과관계 설명
누구나 쓰는 말	관습	이야기
전문가의 말	코드	학술적 논고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이유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관습적 이유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그것이 참인지, 설명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걸맞은지**에 달려 있다.

네 장면으로 따라가기

1 → 4

1막

같은 사건, 네 가지 대답

어느 대답이 맞을까



2막

항공관제사의 세 가지 설명

이유에는 권력이 묻어 있다



3막

이유가 없을 때, 단순할 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이야기의 힘

9.11

4막

9.11과 양질의 이야기

전문가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친구의 책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좀 덜렁거리나 봐.”

관습

“미안, 어제 잠을 거의 못 잤거든.”

이야기

“책을 그렇게 두면 교칙 위반이야.”

코드

“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학적 이유는 말아야....”

학술적 논고

어느 대답이 **맞습니까?**

머뭇거리셨다면, 그 머뭇거림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정답은

“상대가 **누구나**에 따라 다르다.”

그 ‘상대’, 곧 **관계**가 이 책의 진짜 주제입니다.



도판 2

클리블랜드 시립공항 관제탑 내부 (1937년 사진)

2막 · 항공관제사의 세 가지 설명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할 뻔한 사건

관제사는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파티의 지인	“흔히 있는 일이에요” 하며 가볍게
--------	---------------------

직장 동료	더 길고 기술적인 설명
-------	--------------

부서장	빠짐없이 상세한 공식 보고서
-----	-----------------

세 설명은 **모두 사실**입니다.

관제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 **관계**다.

파티의 지인에게 기술 보고서를 들이밀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부서장에게 “흔한 일이에요”라고 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유의 형식을 잘못 고르면, 내용이 맞아도 **관계**가 무너진다.

이유에는 권력이 묻어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습보다 이야기처럼 더 공들인 이유를 줍니다.

교수 → 학생

“학칙상 안 됩니다.”

코드는

내가 힘을 가진 상대에게는 쉽게 들이대지만, 나보다 힘이 센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학생 → 교수

“학칙상 안 됩니다.”

같은 문장인데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유의 형식 안에 이미 누가 누구 위에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응급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환자에게 아무 설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자폭탄 피해 계산

미국 정부는 화재로 인한 파괴 효과를 왜 빼놓았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행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

설명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지를 보면 관계의 위계가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왜 강한가

인종 분리에 찬성하던 한 개신교 목사가 생각을 바꾼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시 미국을 뒤흔든 민권운동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주 찾던 흑인 노인 구두닦이가 조심스럽게 왜 자신은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물었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불완전한 설명이지만, 톨리는 이것을 결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등장인물을 **의도적으로 최소화**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진다.



도판 3

미국 남동부의 구두닦이 노점 (워커 에번스 사진, 1936년)

경제학도에게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

경제 현상은 수많은 사람의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늘 “누가 그랬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누군가의 탐욕을 찾고

경기가 나빠지면

누군가의 실정을 찾는다

틸리가 이 책을 쓴 동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효과와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자신의 설명이 사람들을 잘 설득하지 못한다는 답답함.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학자로서 겪게 될 바로 그 답답함입니다.

9·11 이후 쏟아진 이유들

이야기

테러리스트가 저질렀지만, 해이한 관리들이 그것을 방치했다.

관습

현대 생활은 원래 위험하다.

코드

지켜야 할 자유가 있으므로 테러와 싸워야 한다.

필자의 분석 · 한국 사례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고나 참사 뒤에 벌어지는 논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자를 찾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법과 규정을, 누군가는 피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복잡한 원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논쟁이 엇갈리는 것은 서로 다른 형식의 이유 로 말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양질의 이야기 superior stories

학술적 논고의 정확성을 지키면서, 대중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야기의 형식으로 옮긴 설명.
단순화하지만,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틸리가 꼽은 사례

재레드 다이아몬드, 테러리즘 전문가 제시카 스톤. 의사·변호사·성직자처럼 일반인을 상대하는 전문직은 두 언어를 잇는 데 능숙하다.

틸리의 날카로운 한마디

일반인에게 낯선 코드나 학술적 논고를 내미는 사람은 둘 중 하나다. 관계를 오해했거나, 어려운 지식을 앞세워 자신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사고를 냈다면

기업 · 학술적 논고

센서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규제기관 · 코드

법령과 인허가 기준

시민·언론 · 이야기

“그래서 누구 책임인가”

누군가 · 관습

“새로운 기술에는 원래 사고가 따른다”

이 네 언어가 서로 엇갈리는 순간,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집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이유를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학자는 학술적 논고의 언어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대중과 정치인의 이야기 속에서 결정됩니다.

**전문가의 언어를 시민의 이야기로 옮기는 능력은
'말재주'가 아니다.**

그것은 **전문성의 일부**다.

비판적으로 읽기

대체로 호평을 받았지만,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01

통찰의 독창성

퍼블리셔스 위클리: 관계가 이유의 형식을 결정한다는 통찰은 킬리 스스로 인정하듯 그리 새롭지 않고, 전문가가 단순화해야 한다는 결론도 놀랍지 않다.

02

분류의 근거

요르크 포트하스트(FQS): 왜 하필 네 가지인지 밝히지 않는다. 이유 제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는 강하지만, 논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03

현실의 복잡성

국내 독자들: 언어와 구조 중심이라 감정이나 윤리적 직관이 개입하는 이유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의 이유가 여러 유형에 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틀은 쓸모가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의 제목이 『왜의 쓸모』이니깐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댄 이유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네 가지 중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각각 어떻게 설명할까요?

경제학 교수

중앙은행

뉴스 앵커

동네 자영업자

그중 누구의 설명이 '양질의 이야기'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회학자 엄기호는 추천사에서 대중에게 양질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썼습니다. 정치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정책을 설계하고 설명하게 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책, 참고 자료, 도판 출처

책

찰스 톨리, 『왜의 쓸모』, 최지원 옮김, 유유, 2025.

Charles Tilly, *Why? What Happens When People Give Reasons... and W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참고한 서평과 자료

유유 출판사 책 소개·목차·추천사 (예스24)

리디 독자 서평

Publishers Weekly 서평 (2006)

Adam Phillips, "Let's have your story", *London Review of Books* (2006)

Jörg Potthast, Review of *Why?*,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0(1) (2009)

Princeton University Press 책 소개

이 자료는 책을 소개하고 비평하기 위해 필자가 작성한 강의 자료입니다. 책의 내용은 필자의 요약과 해석이며,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판 · 모두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색은 필자가 입힘)

표지 A. Raimbach 판각, D. Wilkie 그림, *Village Politicians*, 181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commons.wikimedia.org/wiki/File:Village_politicians_-_painted_by_D._Wilkie,_R.A._;_etch'd_by_A._Raimbach._LCCN2006678336.jpg

도판 1 Edward Steichen, *Rodin – Le Penseur*, 1905.

commons.wikimedia.org/wiki/File:Steichen-rodin-le-penseur-1905.jpg

도판 2 Cleveland Municipal Airport, 관제탑 내부, 1937. 미국 HAER 기록.

commons.wikimedia.org/wiki/File:General_view_of_interior_of_air_traffic_control_tower,_1937._-_Cleveland_Municipal_Airport,_Cleveland,_Cuyahoga_County,_OH_HAER_OHIO,18-CLEV,19-3.tif

도판 3 Walker Evans, *Shoeshine stand, Southeastern U.S.*, 1936. 미국 농업안정국(FSA) 기록.

commons.wikimedia.org/wiki/File:Shoeshine_stand,_Southeastern_U.S._by_Walker_Evans_1936.jpg

이 자료를 인용하실 때

인용 표기

김동영, 『『왜의 쓸모』 책 소개 강의 노트』, 2026, davidsnote.com

출처를 나누어 밝혀 주세요

책의 주장과 사례를 인용할 때는 원서를, 네 장면 구성과 16·17·19쪽의 분석
(경제학도에게, 한국 사례, 기술 정책)을 인용할 때는 이 자료를 출처로 밝혀 주세요.

이용 조건 · CC BY-NC 4.0

이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밝히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영상, 유료 강의·출판물은 영리 목적 이용으로 보며,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책의 내용과 도판은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deed.ko